

정화의 작은이들



세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51 호

11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11 월 28 일

하반기 캠페인 주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부님 영성의 향기 (16)

‘희망 천사’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09 시 - 미사
- 오전 10 시 - 리타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월례회
- 오전 12 시 - 친교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12/19(토), 예수성심 성당에서 오전 10 시 30 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편이 없으신 회원은 오전 9 시 40 분까지 한참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월례회이므로 모든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12/8(화), St. Francis Table 에서 Homeless 분들에게 점심으로 한국음식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이 참가, 봉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봉사를 희망하시는 회원은 권경수 자매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을 맞이하여 평의회원들이 병환 중이나 양로원에 계시는 회원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도 안부전화나 위로 겸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이숙(비비안나) 자매님의 모친(최이덕 마리아)께서 향년 78 세로 지난 11/8, 한국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이종기(미카엘) 형제님이 12/9(수), 장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수술과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하여...
- 병환 중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은 삶의 희망과 기쁨에 ‘예’ 하고 응답한다. 회원은 수많은 고뇌와 비관주의에 대항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회칙 제 19 조, 회헌 제 26 조)

금년 5 월 9 일, ‘희망 천사’로 불리던 장영희 마리아 서강대 교수는 유방암 척추암에 이어 쳐들어온 간암으로 57 년의 짧은 생을 접고,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하느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인은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에 의지하고, 9 년간 세 차례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옥 같은 따뜻한 글로 장애인과 암 환자를 비롯한 만민에게 ‘희망’을 전파한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였지요.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힘들어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이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천형(天刑)’이라 부르는 자신의 불운을 ‘천혜(天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투병 과정에서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 난 여전히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봄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믿음을 남깁니다. 못다한 사랑을 해주리라는 믿음, 진

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라는 말을 했지요. 고 장영희교수는 정말 기적처럼 살며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례력으로 새해인 내일(11/29)부터라도 희망의 전달자이고, 기쁨의 선포자인 우리 프란치스코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솟아오르도록 기쁨과 희망을 주는 ‘희망 천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회계 보고

2009 년 10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8,355.69	470.00	888.97	7,936.72
선교 후원금	6,804.28	555.00	0.00	7,359.28
도서 구입	1,868.42	215.00	0.00	2,083.42

사부님의 새로운 발자국 하나

김여정 미카엘라 ofs

지난 8 월말에서 9 월초에 걸쳐 두번째 메주고리아 순례를 다녀왔다. 첫 번과 다른 성모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메주고리아 인근 40 여개 본당에 프란치스코 회 신부님들이 사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프란치스코 신부님으로 그 곳을 향하는 나의 발길을 기쁨으로 설레게 했다. 4 백여년 가톨릭 신앙을 지켜온 그곳은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겪는 시련중에도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있어 오늘의 메주고리아가 있게 되었다. 특히 터키 모슬림들이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과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 교구 신부님들은 본당을 비우고 떠났지만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와 주민들과 운명을 같이하여 메주고리아 인근 40 여 개 본당을 관할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곳 주민들은 성모님 발현 이후에야 프란치스코회 수사복이 아닌 사제 복장을 한 신부님들을 처음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슬림과 공산당들의 박해가 절정을 치달고 있던 시절 메주고리아에서 45 분 거리에 있는 ‘이로시 그리엑’이라는 마을에 있는 신학교 마당에서 박해자들은 십자가와 성물을 깔아 놓고 침을 뱉거나 발로 짓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되 그렇지 않으면 맞은편 동굴에 휘발유를 뿌려 화형을시키겠다고 하며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33 명의 프란치스코회원과 신학생들을 끌어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지나 동굴로 향하였고 그 중 가장 나이 어린 18 세 지원자는 엎드려 상본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주워 가슴에 안고 불타는 동굴로 걸어 갔다고 한다. 그분들은 현재 교황청에 시복 청원 중에 있다고 한다.

토론토 공항 이륙 후 16 시간 만에 도착한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닉 공항에서 버스로 드브로브닉 성곽 도시에 들어 순례단 첫 미사를 봉헌하고 잠시 그 곳을 둘러 보게 되었다. 그 곳은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천년고도이며 유럽 2 대 미항의 하나 이라고 한다. 돌로 쌓아 올린 성곽 안에 위치한 그 도시에는 인구 6 천명에 성당이 40 개가 있으며 도시를 둘러 보는데 하루 종일이 걸린다고 한다. 수없는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며 바위와 돌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곽 입구는 거대한 철문을 굵은 쇠사슬로 감아 올리거나 풀어서 외부와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유럽 고전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였고 현재도 촬영이 빈번하다고 한다. 성곽도시는 건물의 벽, 골목길, 그리고 광장까지 모두 돌로 되어 있었다. 도시 초입에서 왼쪽 첫 번째 건물이 프란치스코 성당인데 잠시 성당 안을 둘러보고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프란치스코회가 그 곳에 진출한 유래는 사부님께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 배를 타고 순례를 가시던 중에 폭풍에 파선이 되어 드브로브닉에 얼마동안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그 곳 주민들로 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돌아와 그 환개에 보답코자 제자들을 파견 하셨다고 한다. 회원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그 곳 주민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약초들을 가져다 주민들을 치료하게된 것이 지금도 성당 한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럽 최초의 약국으로 1301 년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고 한다. 13 세기에 성곽 밖에 최초의 수도원이 세워졌으나 끊임없는 외적의 공격 위험으로 14 세기에 성곽 안으로 옮겨졌고 드브로브닉의 가장 평화로운 성전 중 하나인 이 수도원은 1667 년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유일하게 남은 남쪽 벽만 17 세기 재건축 때 옆쪽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대성전 뒤쪽으로 1360 년에 세워진 로마네스코 양식의 건물인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오래된 벽화와 섬세한 기둥으로 꾸며져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 해는 지고 쫓기는 시간 때문에 설명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메주고리아에 프란치스코회가 진출한 발자취를 충분히 그려 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 순례단의 지도 신부님으로 동행하신 최영호 루카 신부님은 가톨릭 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신부님으로 만 알고 있었는데 원래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회원으로 인천교구에 파견 사목을 하시다 인천 가톨릭 대학교 교수직을 맡게 되셨다 하여 본인도 재속회원임을 고백하며 마음속으로 이 번 메주고리아 순례에 사부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당신 발자취의 발자국 하나를 보여 주셨다고 생각하니 순례기간 내내 감동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참으로 은혜로운 순례기간이 되었다.